

대학생들의 의복 처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洪 蓮 淑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An Analysis on College Students' Clothing Disposal Determinants

Yeon-Sook Hong

Full-time Instructor, Dept. of Social Welfare, Cheju Halla College

目 次

Abstract	IV. 연구결과
I. 서 론	V. 논의 및 결론
II. 이론적 고찰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signed a) to exa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llege students' clothing disposal causes and their factor structure; b) to test the effects of gender, clothing satisfaction and family income on clothing disposal determinants; and c)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purchase determinants and overall clothing satisfaction and clothing disposal determinants. Data(n=660) were collected from college students in Cheju Do. The survey questionnaire composed of a revised Clothing Disposal Determinants Scale, Clothing Purchase Determinants Scale and background variables.

First,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clothing disposal were to unfit with body change, get washed out and raise nap on clothe, wornout with long-term use, do not ware for new purchasing clothe, uneasy on wear. Second, factor analysis of the revised Clothing Disposal Determinants Scale revealed five factors: unfitness, fashion change, quality dissatisfaction, product efficiency decrement, and maintenance/inconvenience. Third, female students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in fashion change and unfitness than male students. Forth, unfitness and product efficiency decrement were significantly discriminated between clothing satisfaction groups, unfitness and fashion change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discriminated between family income groups. Fifth, impulsive purchase factor was the best predictor of composite clothing disposal measure, followed by individuality, clothing satisfaction, practicality.

The best predictors of each disposal factors were individuality oriented purchasing criterion in unfitness factor, fashion in fashion change, impulsive purchase in quality dissatisfaction and product efficiency decrement factors, and practicality in maintenance / inconvenience factor. As a whole, the most consistent predictor of clothing disposal determinants was impulsive purchase factor.

I. 서 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패션 변화는 소비자들에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주기로 사용 가능한 의복을 바꾸도록 하여, 의류 폐기의 비율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장경혜, 1996).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내의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는 의복을 구매, 사용 및 폐기하는 현명한 소비자 행동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복의 소비과정은 구입, 사용, 처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구입할 때 아무리 만족스럽던 의복도 사용 후기로 가면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사용 빈도도 줄어들어 착용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다가 결국은 처분하게 된다.

의복사용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적 취향 및 특성, 신체적 요인,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특히 이러한 경험이 부정적이거나 불만족할 때는 구입된 의복을 자주 착용하지 않거나 옷장 속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입지 않고 집안에 보관 중인 의복은 현재의 보유 가치가 유지비용보다 낮아지면 폐기 처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복을 착용하거나 관리하는 중에 옷감이 약화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의복의 치수가 변하거나 착용자의 체형이 변하였을 때, 유행에 뒤떨어졌을 때, 싫증이 났을 때, 재료의 질감이 나빠지거나 변색·착색되었을 때, 제거할 수 없는 얼룩이나 구김살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은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만족하게 착용하던 의복도 폐기해 버리거나 버리게 된다(김성연·이순원, 1984).

의복은 구매전 탐색, 평가 및 구매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쳐 구입하게 되며, 유행, 개성, 동조, 실용성, 경제성, 심미성 등의 개별적인 특징이 그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들 요인들의 결합에 의

하여 의복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구매시에는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사용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불만족스러운 의복 사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의복을 입지 않고 수동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해 버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의복이 폐기가 이루어질 때는 의복 구매 과정과 유사한 문제의 지각, 탐색 및 평가, 처분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의복을 구매할 때는 구매 시점의 만족뿐만 아니라 사용기간, 용도, 경제성, 실용성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행이나 디자인 등 심미적인 면이나 개성, 동조 등의 대인간 상호작용에만 반응하여 의복을 구매하는 행위는 의복 사용시에 불만족을 초래하며 이것은 결국 의복을 조기에 폐기하거나 입지 않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의복 만족도에 관계없이 유행이나 디자인 등이 변하였을 때 의복을 쉽게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복 구매시에 현명한 의사결정을 못한다면 결국 의복에 대한 매력은 빠르게 떨어질 것이고 의복의 효용 가치에 관계없이 의복을 처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의복 소비자 행동중에 의복 구매와 사용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처분 단계에 대해서 수행된 연구는 매우 희귀하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주 초점은 일정한 기간내에 폐기한 의복의 수와 종류들, 폐기한 이유 및 처분 유형들에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의복처분 단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선행자료가 거의 없다.

이 분야의 자료 축적의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 처분을 유도하는 원인들의 상대적 중요성과 그 요인 구조를 규명하고, 배경 변인들에 따라서 의복처분 결정요인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의복 구매시점의 기준들과 사용중 전반적인 의복 만족도가 의복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소비자의 소비 행동

다양한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모델들의 일반적 인 합의는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구매, 사용, 처분의 3단계를 거친다는 점이다. 구매와 사용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처분 단계에 대해서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다. 효율적인 제품 처분의 문제는 보다 나은 환경에 대한 지대한 공공 정책의 관심과 그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출현함으로써 촉진되는 마케팅 전략들 때문에 중요하다(Greenwood, 1990; Solomon, 1992; Shim, 1995).

처분행동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Nicosia와 Mayer(1976)는 소비행동을 구매, 사용 및 처분활동으로 구분함으로써 처분행동을 소비행동의 일면으로 해석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처분활동이란 “제품을 통하여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킨 후의 처리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처분활동도 가치, 규범 및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같은 시기에 Jacoby(1976)는 내구 소비재의 처분 의사결정을 검토한 후,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 제품의 고유 특성, 제품의 외적 상황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특성 요인에는 인성, 태도, 감정, 학습, 사회경제적 요인, 동조의 압력, 사회적 양심 등이 포함되며, 제품의 고유 특성에는 제품의 상태, 연수, 크기, 스타일, 색상, 기술 혁신, 유통성, 대체비용 등이 포함된다. 제품의 외적 상황 요인에는 재정 상태, 보관 장소, 유행 변화, 경제 상황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Jacoby(1976)의 연구는 처분 결정 행동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에 대한 가설들을 개발하거나 구조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장경혜, 1996).

Hanson(1980)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소비자 제품 처분 과정의 패러다임(paradigm of consumer product disposition processes)을 개발하였다. 그의 모델에서 처분 과정은 다른 소비자 의사결정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문제 인식으로

부터 시작하여 처분 욕구에 대한 단서가 촉발되고 처분 방법에 대한 탐사와 평가, 처분 결정 및 사후-처분 결과들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개인 또는 가족의 특성, 상황적 변인들, 제품의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의 모델에서 처분결정이란 처분행동을 직접 보여주는 것으로써 처분행동을 제품의 유지, 제품의 영구적 처분, 제품의 일시적 처분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고, 처분결정 후의 결과는 향후의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Hanson의 패러다임은 처분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순수한 이론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연구가 요망된다(Shim, 1995).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때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Jacoby, Berning & Dietvorst(1977)는 소비자의 처분 선택의 개념적 분류 도식을 개발하였는데, 3개의 일반적인 선택이 포함된다. 즉, 첫째, 미래에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품목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전환한다. 둘째, 던져 버리거나 팔아 버림으로써 영구적으로 그것을 제거한다. 셋째, 빌려줌으로써 일시적으로 제거한다. 연구자들은 더욱이 처분 방식이 제품의 범주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Burke, Conn & Lutz(1978)는 보관하거나 파는 처분 방법을 이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정용품을 폐기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며,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제품은 무엇이든지 잘 버리는 생활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세일이나 기부 등 훗날 활용을 예상하여 가정에서 제품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품 관련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Debell과 Dardis(1979)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처분한 이유와 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처분 연구들은 제품에 특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처분에 대한 연구들은 제품의 독특한 특성과 제품 소비과정(각 제품이 구입, 활용 및 폐기되는 방식) 때문에 제품-특정한 것이어야 한다. 의복은 집과 같이 내구적이

지도 않으면서도 그것이 일단 소비되어지고 결국 음식물과 같이 되었을 때는 비내구적이지도 않다. 더욱이 패션은 의복 소비의 중요한 특징이다. 가정 용구 또는 여타의 하드웨어 상품들은 종종 제품의 기능 저하 또는 비교적 오래 제품을 사용한 후 새로운 기술 유용성 때문에 처분된다. 그러나 의복은 단순히 패션이 변했거나, 낡아빠져서 지 자신의 외모의 변화 때문에 처분되는 수가 있다(Shim, 1995).

2. 의복 소비 및 처분 과정

의류학 분야에서 의류 소비 및 처분과정의 개념적 모델을 살펴보면, Winakor(1969)는 의복의 소비과정을 취득, 비축, 활용, 유지 및 폐기로 묘사하는 “의복 소비 과정 모델”(Model of the Clothing Consumption Process)을 개발하였다. 의복의 독특한 특성들을 인정하면서, Winakor는 의복들은 취득하고 활용하여 폐기에 의해 제품 목록에서 제거된다는 모델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취득, 사용, 폐기의 유동은 연속적이기보다는 간헐적이다. 예를 들어, 몇몇 입을 만한 의복들은 이러한 의복들이 일정한 시간내에 닳아 해어지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 보관과는 반대로) 수동적 보관이 된다. 이 수동성 보관 단계는 제품 목록과 폐기 사이의 상태를 나타내는 중간 단계로서 묘사하였다. 의복 폐기는 한 개인이 물려주거나 버리거나 교환 또는 작은 천조각으로 활용, 양도 및 단순하게 없애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의복 소유를 그만 두었을 때 일어난다(Winakor, 1969). Winakor는 또한 의복 착용 비율과 폐기전 사용 기간은 연령, 활동, 목표, 가치, 의복의 양과 질, 그리고 패션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개인적 특성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Winakor(1969)의 모델과 일관되게 수많은 연구자들이 의복 소비과정에 대한 이해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 중 VeVerka(1974)는 Winakor(1969)의 모델을 토대로 수정된 소비 과정 모델(bathtub model)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델에서는 능동적 사용, 수동적 보관, 폐기의 세 국면이 함께 놓여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초창기에는 사용된 의복의 판매 유형, 사용된 의복 구매자의 특성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Krusekopf, 1964; Martin:1962). Buller(1966)는 의복 구매와 폐기를 연구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기법들(회상 대 기록 보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은 또한 대학생(Glenn, 1964), 상이한 가계 수입의 어린이들(Kunz, 1970), 가계 수입이 하층, 중간층의 여성(Kielty, 1970)과 같은 상이한 집단들의 의복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려고 하였다(Shim, 1995).

Smith(1971)는 12개의 가계를 대상으로 가족의 직물 소비를 조사한 결과, 가족 직물의 처분은 사회계급과 상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중간계급은 집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가족의 직물을 버리긴 하지만, 저소득 계층은 좀처럼 가족의 직물들을 버렸다는 언급이 없었다. Smith의 연구를 확장하여 Greeley(1973)는 도시 가계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의복소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연구는 주로 처분 단계보다는 소비의 구매와 관리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주로 의복의 불활성 또는 폐기 단계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VeVerka(1974)는 선정된 가족들을 대상으로 활성, 불활성 및 폐기된 의복, 그리고 보관의 경제적 가치와 능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의복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관습을 조사하였다. 그녀의 연구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수동적 또는 폐기된 의복은 쓰레기의 근원중 하나라는 것이었다. 의복들은 의복에 의해서 제공되는 현재의 활용 가치가 의복의 현재의 원가보다 적었을 때, 그리고 의복 유지 비용이 의복 처분 비용을 능가했을 때 폐기된다고 결론지었다. Fratzke(1976) 또한 의복 불활성과 폐기를 의복소비에 있어서 낭비 잠재력이 높은 주요 근원으로 간주하였고, 사람들은 의복을 보다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치 지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치적(예, 워신에 대한 욕망), 탐색적(예, 실험의 근원으로 의류 품목을 간주하려는 바렘)가치들이 높은 사람은 동일한 가치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특별한 유형의 의복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의복 처분의 주된 이유들은 부적합한 맞춤세, 스타일, 기분, 오래됨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김병미, 이재명(1997)은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체형 변화로 치수가 맞지 않아서, 오래 입고 낡아서, 디자인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유행 변화, 충동구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윤정혜, 1985)유행이 지나거나 지나친 구매 행위, 싫증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이고, 손상이나 크기가 맞지 않아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적게 조사되었다. 성인인 경우는 유행에 뒤떨어지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심리적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녀는 주로 치수가 맞지 않은 경우가 주된 이유였다.

최근에 성인 여성의 의복 폐기를 조사한 유연실(1996)은 일반 의복 폐기를 유도하는 개별 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새로 산 다른 옷이 있어서 안입게 된다”는 원인이 폐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디자인의 유행이 지났다”, “색무늬의 유행이 지났다”는 응답으로 유행 원인들이 또한 폐기의 주된 원인임을 밝혔다. “디자인의 싫증” 및 “옷을 입을 기회의 상실”의 원인도 의복을 폐기하는 주요한 원인들로 평가되었다. 이어서 의복 폐기 원인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하여, 적합성에 대한 불만, 물리적 효용감소, 유행 변화, 품질 불만, 싫증, 취향 변화 및 불편의 6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밝혔다.

Ⅲ. 연구방법

1. 피험자

본 연구의 피험자는 제주도내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659명을 무선 표집하였다. 피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271(41.1%)명, 여학생 388(58.8%)명이었다. 학교별로는 2년제 대학 재학생이 224명(33.8%), 4년제 대학 재학생이 435명(65.9%)이었으며, 이 중 1학년이 38.8%(256명), 2학년 37.0%(244명), 3학년 18.6%(123명), 4학년 5.5%(36명)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전체 월평균 수입액은 160만원 미만이 234명으로 35.5%, 160~200만원이 149명으로 22.6%, 200~250만원 미만이 157명으로 23.

8%, 250만원 이상이 119명으로 18.0%를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1) 의복구매 결정 요인 측정

의복구매 결정요인의 측정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홍연숙(1992)이 개발한 의복구매 결정요인 측정지를 이용하였다. 이 측정지는 구성타당도, 내용타당도 및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정을 거친 측정지로서 6개의 요인과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 요인은 8문항, 상표/가격 요인은 6문항, 개성 요인은 5문항, 실용성 요인은 7문항, 충동구매 요인은 5문항, 유행 요인은 4문항으로 할당되어 있다. “다음 각 문항들이 귀하가 의복 구매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지적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1)에서 매우 중요하다(5)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 값으로 신뢰도를 구한 결과 품질요인 .81, 상표/가격 요인 .79, 개성 요인 .71, 실용성 요인 .68, 충동구매 요인 .66, 유행 요인 .64로 나타났다.

2) 의복처분 결정 요인 측정

의복처분 결정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유연실(1996)의 제작한 28문항의 의복폐기 의사 결정 요인을 근거로 하고 한라대학의 남녀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처분했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는 옷을 한가지씩 정하고 자유 기술 형식으로 처분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29문항을 작성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유 기술식 응답에서 나타난 결과는 정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응답 내용도 유연실의 항목과 중복이 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의복처분 결정 척도는 유연실의 질문지를 유효하였으나, 일부 항목의 추가와 수정을 거쳐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질문지의 요인구조를 파악하여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 값을 구하였다.

3) 관련 변인 측정

관련 변인으로는 최근에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는 외출복 한 벌을 선정하여 의복의 종류, 사용 기간, 구입 가격, 사용할 때의 전반적인 의복 만족도를 질문하고, 배경 변인으로 성, 연령, 학교별,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를 질문하였다. 의복 만족도는 “위에 기재한 옷을 사용할 때의 의복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라는 단일 항목의 질문을 주어 전혀 만족하지 못하였다(1)에서 매우 만족하였다(5)의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 변인은 “지난 2년 동안의 가족의 수입 감소 정도”, “대학입학 등으로 인한 가정의 금전적 수요 증가 정도”, “향후 2년간 가족 수입의 증가 정도”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값을 합하여 경제적 스트레스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처리

자료 수집은 5개 대학교의 일반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로서 강의시간에 담당교수의 허락을 얻고 연구자와 1명의 보조자에 의해서 연구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총 680부를 조사자료로 수집하였으나, 응답의 신뢰성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여 자료분석에는 총 659부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통계 처리되었다.

- 1) 의복처분 원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사를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으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 3) 관련 변인들에 따른 의복처분 결정 요인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의복구매 의사결정 요인과 전반적인 의복 만족도가 의복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의복처분 원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표 1〉은 의복폐기 원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성별 및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체형변화로 옷이 잘 맞지 않는다”는 항목이 의복을 폐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색이 바래고 보풀이 생겼다”, “오래 입어서 옷이 남아졌다”, “새로 구입한 옷이 있어서 안 입게 된다”, “입었을 때 편하지 않다”는 순으로 그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20대 초반의 대학생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창 정신적 성장뿐만 아니라 신체적 성장의 정점에 다다른 시점이기 때문에 체형 변화로 인하여 옷을 폐기하는 원인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은 이 시기의 발달상의 특성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색이 바래거나 오래 입어서 제품의 효용가치가 떨어졌을 때 의복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옷의 구입에 따른 기존 의복의 사장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서도 의복의 폐기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중요도가 낮은 순으로 살펴보면, “옷감의 유행이 지났다”는 원인이 의복폐기를 결정할 때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재단과 봉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단추나 지퍼 등 부속품이 고장났다”, “이 옷을 많이 입었더니 싫증이 났다”, “옷이 두껍고 무겁다”는 순으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29개 항목의 의복처분 원인들을 좀더 명확한 요인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2. 의복처분 척도의 구성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요인 분석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지는지를 확인하여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점검하려고 한다. 먼저 요인 분석을 적용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과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합도

<표 1> 의복처분 원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개별 분항	남학생		여학생		전 체	
	\bar{X}	s	\bar{X}	s	\bar{X}	s
단추나 지퍼 등 부속품이 고장났다.	2.75	1.26	2.81	1.21	2.79	1.23
재단과 봉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2.61	1.14	2.83	1.15	2.74	1.15
세탁에 의하여 치수가 변하였다.	3.25	1.15	3.30	1.21	3.28	1.19
옷이 두껍고 부겁다.	2.69	1.09	2.98	1.12	2.86	1.12
옷감의 종류와 질이 좋지 않다.	2.98	1.11	3.27	1.14	3.15	1.14
옷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2.79	1.16	2.98	1.12	2.90	1.15
새로 구입한 옷이 있어서 안 입게 된다.	3.18	1.11	3.48	1.11	3.36	1.12
디자인의 유행이 지났다.	2.74	1.13	3.23	1.20	3.03	1.19
색/무늬가 유행이 지났다.	2.59	1.10	3.09	1.15	2.89	1.15
옷의 디자인에 싫증이 났다.	2.82	1.13	3.27	1.13	3.08	1.15
이 옷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다.	2.92	1.12	3.33	1.12	3.16	1.14
옷의 색 무늬에 싫증을 느꼈다.	2.80	1.06	3.19	1.05	3.03	1.07
내 취향이 바뀌었다.	2.80	1.11	3.21	1.02	3.04	1.08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2.99	1.13	3.46	1.06	3.26	1.11
다른 옷과 조화시키기 힘들다.	3.08	1.14	3.46	1.11	3.30	1.14
입었을 때 편하지 않다.	3.23	1.22	3.39	1.13	3.32	1.17
이 옷을 많이 입었더니 싫증이 났다.	2.76	1.05	2.83	1.09	2.80	1.08
디자인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2.94	1.07	3.39	1.07	3.21	1.09
처분하려는 옷이 그 옷을 입을 상황에 적합치 않다.	2.97	1.03	3.09	1.03	3.04	1.03
옷감의 유행이 지났다.	2.56	1.02	2.78	1.04	2.69	1.04
색/무늬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2.91	1.07	3.30	1.13	3.14	1.12
색이 바래고 보풀이 생겼다.	3.23	1.11	3.63	1.19	3.47	1.12
이 옷을 입으면 거추장스럽고 활동하기 에 불편하다.	3.27	1.22	3.32	1.15	3.30	1.18
오래 입어서 옷이 낡아졌다.	3.30	1.13	3.47	1.15	3.40	1.14
체형 변화로 옷이 잘 맞지 않는다.	3.54	1.17	3.52	1.15	3.52	1.16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2.87	1.11	3.18	1.12	3.05	1.12
내 나이와 신분에 걸맞지 않는다.	3.04	1.12	3.27	1.15	3.17	1.14
옷을 손질하고 세탁하기가 힘들다.	2.82	1.09	3.00	1.10	2.92	1.10
옷감의 종류와 질이 좋지 않다.	2.84	1.08	3.01	1.06	2.94	1.07

(measure of sampling adequacy)검정을 실시하였다. 29개의 의복 처분 항목들에 대한 Bartlett의 단위행렬(Bartlett's test of sphericity=6696.7955, $p < .000$) 점검결과 p값이 .000으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었으며, 전 자료의 표본 적합도 값도 .897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두 검정 통계량의 값으로부터 요인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추출될 요인의 수는 유연실(1996)의 결과와 고

유값(eigen value)이 1보다 커야 한다는 Kaiser (1958)의 기준에 따라 1.0이상인 요인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을 구하고자 자료의 총 분산을 이용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모형을 이용하여 최초의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분산의 59.5%를 설명하는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5번째 요인은 2개(26, 27번 문항)의 항목(“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와 “내 나이와 신분에 걸맞지

않는다”)만으로 요인 구성이 되었고, 문항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도 낮았으며, 자신이 속한 요인 말고도 다른 요인들에서 .30이상의 높은 적재량을 보였기 때문에 이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또한 12, 17, 29번 문항은 요인 적재량이 낮은 뿐만 아니라 공통분산 값이 낮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차 요인분석에는 24개의 항목이 투입되었고, 주 성분 분석 모형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식중 Oblimin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각회전 방식을 이용한 이유는 요인들

<표 2> Oblimin방식으로 회전시킨 요인 행렬표

문항번호	요인적재량					h ²
	1	2	3	4	5	
요인 1						
18	.773	-.047	.027	.069	-.016	.60354
14	.722	-.207	.115	-.042	-.122	.69378
15	.692	-.035	.065	.014	.066	.57463
13	.655	-.215	-.004	-.090	-.019	.56761
21	.645	-.101	.124	.160	-.112	.58269
19	.644	.090	-.007	.103	.105	.47450
11	.453	-.167	-.083	-.144	.148	.32649
요인 2						
9	-.045	-.894	.026	.078	.083	.79341
8	.007	-.893	-.021	.023	.036	.79908
10	.290	-.658	.062	-.111	-.123	.69107
7	.069	-.653	-.098	-.013	.122	.47290
20	.123	-.565	.127	.207	-.114	.48833
요인 3						
2	-.029	-.078	.812	-.109	.019	.67501
1	-.061	-.012	.736	.004	.065	.55331
3	-.022	.144	.609	-.330	-.044	.55832
5	.306	.041	.545	.024	.076	.52566
4	.154	-.034	.495	.052	.235	.49551
요인 4						
24	-.078	-.123	.050	.793	.052	.65288
22	.051	-.160	.125	.661	-.061	.53481
25	.116	.110	-.094	.634	.144	.49422
요인 5						
28	-.097	-.173	.123	.108	.775	.70970
6	.003	-.082	.396	-.167	.662	.68028
13	.220	.038	-.066	.316	.581	.64762
4	.396	.220	.019	.165	.493	.60354
고 유 값	7.46	2.98	1.51	1.23	1.02	
설명변량	31.1	12.4	6.3	5.1	4.3	
누적변량	31.1	43.5	49.8	54.9	59.2	

간의 상관성이 다소 높게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전체 분산의 59.2%를 설명하는 5개 요인이 나타났다. <표 2>는 시각회전 한 요인행렬표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요인은 부적합성, 유행 변화, 품질 불만, 제품 효용 감소, 관리/불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은 디자인이 자신과의 조화, 상황에의 부적합성, 취향변화 및 착용 기회가 적다는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므로 “의복 부적합성”이라 명

명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 변량의 31.1%를 설명하고 있으며, 고유값이 7.46으로 전체 설명 변량 중 최대부분을 나타내는 변인들의 선형조합이다. 요인 2는 색, 무늬, 디자인이 유행에 지났다는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행 변화”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고유값이 2.98이고 전체 변량의 12.4%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의복의 품질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품질 불만”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의복처분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요 인 /항 목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요인 1(부적합성)		.84
디자인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646	
다른 옷과 조화시키기 힘들다.	.644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708	
내 취향이 바뀌었다.	.620	
처분하려는 옷이 그 옷을 입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536	
색/무늬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625	
이 옷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다.	.418	
요인 2(유행 변화)		.85
색/무늬가 유행이 지났다.	.799	
디자인이 유행이 지났다.	.782	
옷의 디자인에 싫증이 났다.	.683	
새로 구입한 옷이 있어서 거의 안 입게 된다.	.527	
옷감이 유행이 지났다.	.526	
요인 3(품질 불만)		.77
재단과 봉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603	
단추나 지퍼 등 부속품이 고장났다.	.521	
세탁에 의하여 치수가 변하였다.	.505	
옷감이 종류와 질이 좋지 않다.	.541	
옷이 너무 두껍거나 무겁다.	.534	
요인 4(제품 효용 감소)		.63
오래 입어서 옷이 낡아졌다.	.534	
색이 바래고 보풀이 생겼다.	.424	
체형 변화로 옷이 잘 맞지 않는다.	.357	
요인 5(관리/ 불편)		.78
옷을 관리하기가 힘들다.	.626	
옷을 세탁하기가 어렵다.	.531	
이 옷을 입으면 거주장소롭고 활동하기에 불편하다.	.605	
입었을 때 편하지 않다.	.570	
전 체 (24문항)		.90

이 요인은 고유값이 1.51이고 전체 변량의 6.3%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4는 의복의 노후화와 체형변화로 인한 문제 3분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품 효용 감소”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고유값이 1.23이고 전체 변량의 5.1%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요인 5는 의복관리 및 손질의 어려움과 착용시 의복의 불편함을 나타내는 4분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리/불편”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값이 1.02 이고 전체 변량의 4.3%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의복 처분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별 문항과 전체 점수의 상관계수와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상관계수들의 범위는 .35~.79로 나타나 특정 요인내의 모든 항목들이 논리적으로 관련이 높은 것(문항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63~.85의 범위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3. 관련 변인들에 따른 의복처분 결정요인의 차이

의복처분 원인들에 대한 요인분석은 의복 처분 결정 요인들이 어떻게 추출되는지를 알아보는 답사의 목적이 주된 것이나 요인분석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지수(index)화하여 추후분석에 이용하려는 측정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회귀방식(regression method)에 의하여 얻어진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라 의복 처분 결정 요인들의 차이를 검증해 보기 위하여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요인점수들을 종속변

인으로 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의복 처분의 요인점수 평균, 단변량 F-검정, 판별분석 및 다변량 검정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 의복처분 결정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λ=.93, Approximate F(5, 648) =9.46, p<.000]. 다변량 효과가 의의있기 때문에 사후 검정 단계로 의복 처분 결정 요인들 중 어떠한 변인들이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부적합성과 유행 변화 요인의 평균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단변량 F-검정은 종속 변인사이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판별분석의 결과를 함께 점검하였다. 의복 처분 결정 요인들이 성별을 판별하는 데 미치는 상대적인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판별계수를 살펴보면, 유행 변화 요인이 성별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개별 종속변인과 판별함수 변량과의 상관계수인 판별 구조 상관계수(정준부하량)를 살펴보면, 유행 변화 요인의 정준 부하량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에 유행 변화 요인의 중요성이 가장 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변량 F-검정 결과와 판별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행 변화 요인이 남녀 학생을 구분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유행 변화와 부적합성에 따라서 의복을 폐기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성별에 따른 의복 처분 결정요인의 다변량 분산분석의 결과

종속변인	요인점수 평균		Univariate		표준판별함수계수	판별구조 상관계수
	남학생	여학생	F	P		
부적합성	-.17	.12	9.37	.002	-.104	-.444
유행변화	.19	-.13	12.39	.000	.981	.510
품질불만	-.04	-.02	.46	.499	-.421	-.098
제품효용감소	-.02	-.01	.16	.690	-.223	-.058
관리불편	.03	-.02	.27	.606	-.195	-.075

MANOVA TEST: Wilks' Lambda=.93, Approxi. F(5, 648)=9.46, p<.000

<표 5> 의복만족도에 따른 의복 처분 결정 요인의 다변량 분산분석의 결과

종속변인	요인점수 평균			Univariate		표준화계수		구조상관계수	
	불만족	보통	만족	F	P	함수 1	함수 2	함수 1	함수 2
부적합성	.36	.14	-.18	8.69	.000	-1.03	-.59	-.75	-.19
유행변화	-.12	-.04	-.02	.29	.752	.65	.00	.13	-.11
품질불만	.02	.01	-.08	.47	.626	-.30	-.51	-.16	-.13
제품효용감소	-.29	.09	.05	4.22	.015	.25	-.96	.40	-.68
관리불편	-.18	.00	.00	1.05	.350	-.00	-.65	.23	-.27

MANOVA TEST: Wilks' Lambda=.94, Approx. F(10, 1116)=3.77, p<.000

<표 5>는 의복 만족도 수준에 따라 의복 처분 결정 요인들의 차이를 검정해 보기 위하여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요인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의복 만족도에 따라서 의복처분 결정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λ =.94, Approximate F(10, 1116)=3.77, p<.000]. 다변량 효과가 유의하기 때문에 사후 검정 단계로 의복 처분 결정 요인들 중 어떠한 변인들이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부적합성과 제품 효용 감소 요인의 평균은 만족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 평균치들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방식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성 요인에서는 의복에 대하여 불만족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두 집단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며, 제품 효용 감소 요인에서는 불만족 집단이

보통이거나 만족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만족한 집단일수록 의복을 처분할 때 제품 효용 감소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단변량 F-검정은 종속 변인사이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판별분석의 결과를 함께 점검하였다. 두 개의 판별 축이 모두 유의하기 때문에 표준화계수보다 구조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종속변인과 판별함수 변량과의 상관계수인 판별 구조상관계수(정준 부하량)를 살펴보면, 첫번째 축에서는 부적합성 요인의 정준 부하량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에 부적합성의 중요성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축에서는 제품 효용 감소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변량 F-검정 결과와 판별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적합성 요인이 만족도 정도를 판별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은 가계수입에 따라 의복 처분 결정 요

<표 6> 가계소득에 따른 의복 처분 결정 요인의 다변량 분산분석의 결과

종속변인	요인점수 평균(단위: 만원)				Univariate		구조상관계수		
	160미만	160~200	200~250	250이상	F	p	함수 1	함수 2	함수 3
부적합성	.09	-.13	-.21	.26	4.31	.005	-.80	.50	-.04
유행변화	.20	-.17	-.08	-.09	4.11	.007	.07	-.95	-.30
품질불만	.03	.06	.04	-.19	1.44	.229	.47	-.02	-.34
제품효용감소	-.02	.18	-.13	-.02	2.23	.084	-.17	.38	-.76
관리불편	-.04	-.00	.08	-.03	.39	.761	-.19	.12	-.23

MANOVA TEST: Wilks' Lambda=.95, Approx. F(15, 1783)=2.38, p<.002

인들의 차이를 검정해 보기 위하여 가계수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요인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가계수입에 따라서 의복처분 결정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λ =.95, Approximate F(15, 1783)=2.38, $p < .002$]. 다변량 효과가 유의하기 때문에 사후 검정 단계로 의복 처분 결정 요인들 중 어떠한 변인들이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부적합성과 유행 변화 요인의 평균은 가계수입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 평균치들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방식의 다중범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성 요인에서는 250만원 이상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의복의 부적합성을 의복처분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행변화 요인에서는 160만원 이상 집단들과 160만원 미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60만원 이상의 집단들이 의복을 처분할 때 유행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단변량 F-검정은 종속 변인사이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판별분석의 결과를 함께 점검하였다. 3개의 판별축이 모두 유의하기 때문에 표준화계수보다 구조계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종속변인과 판별함수 변량과의 상관계수인 판별 구조 상관계수(정준 부하량)를 살펴보면, 첫번째 축에서는 부적합성 요인의 정준 부하량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에 부적합성의 중요성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축에서는 유행변화 요인이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축에서는 제품 효용 감소 요인이 설명력이 높다. 따라서 단변량 F-검정 결과와 판별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적합성 요인이 가계수입 정도를 판별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의복구매 결정요인과 의복처분 결정요인간의 관계

의복 소비과정은 구입, 사용, 처분의 3단계로 구성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구매시 결정요인은 사용할 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의복을 처분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표 7>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인들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7>에서 보면, 의복만족도와 의복구매 결정요인들간의 상관계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변인들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은 의복처분 결정요인의 전체 측정값을

<표 7> 의복구매 기준과 전체 의복처분 측정치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C1	C2	C3	C4	C5	C6	SAT	DIS
품질(C1)	1.00							
상표/가격(C2)	.135**	1.00						
개성(C3)	.139***	.520***	1.00					
실용성(C4)	.384***	-.043	-.142***	1.00				
충동구매(C5)	.289***	.246***	.445***	.016	1.00			
유행(C6)	.132**	.448***	.496***	-.092*	.445***	1.00		
의복 만족도(SAT)	.068	-.053	-.032	.135**	-.048	-.024	1.00	
전체의복처분(DIS)	.203***	.283***	.363***	.080	.387***	.315***	-.137**	1.00
\bar{X}	25.55	16.62	16.47	24.21	14.74	9.73	3.40	87.35
s	4.06	4.28	3.55	3.84	2.86	2.68	.93	14.62

<표 8> 의복처분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의복처분합성치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Beta)	b의 표준오차	t	VIF
의복만족도	-2.087	-.133	.586	-3.559***	1.03
유행	.484	.089	.251	1.924	1.56
품질	.211	.058	.152	1.377	1.31
실용성	.413	.109	.157	2.628**	1.25
상표/가격	.294	.086	.154	1.913	1.48
충동구매	1.137	.222	.228	4.978***	1.46
개성	.732	.178	.200	3.655***	1.74
회귀상수	40.672				

MR=.49, R²=.24, D-W=1.97

** p<.01, *** p<.001

종속변인으로 하고 의복구매 결정 요인들과 전반적인 의복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회귀모형의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

(muticolinearity)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허용치(tolerance)의 역수인 분산 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점검한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같이 모든 변

<표 9> 의복처분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MR	R ²	R ² Change	Beta	F*
부적합성	개성	.357	.127	.127	.357	82.15
	충동구매	.418	.175	.047	.243	59.40
	의복만족도	.451	.204	.029	-.171	47.77
유행변화	유행	.423	.179	.179	.423	122.72
	개성	.472	.223	.044	.241	80.57
	충동구매	.497	.247	.024	.181	61.33
	의복만족도	.514	.264	.017	-.132	50.32
	상표/가격	.521	.271	.007	.100	41.59
품질불만	충동구매	.253	.064	.064	.253	38.37
	품질	.291	.085	.021	.151	26.03
	개성	.315	.100	.014	.133	20.54
제품효용감소	충동구매	.154	.024	.024	.154	13.65
	실용성	.188	.035	.012	.109	10.32
관리/불편	실용성	.240	.057	.057	.240	34.20
	충동구매	.295	.087	.030	.172	26.75
	상표/가격	.301	.096	.009	.096	19.77

* 모든 F값은 P<.001수준에 유의함.

인의 VIF는 10보다 현저하게 작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97이므로 양측 및 단측 검중 모두에서 유의수준 .01수준에서 계열상관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상치(outlier)를 알아보기 위하여 Cook D통계량을 점검한 결과도 case 184의 쿡값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유의도가 크지 않으므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잔차의 정규분포 가정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의 결과에서 보면, 중회귀식은 의복처분 = 40.672 - 2.087의복만족도 + .484유행 + .211품질 + .413실용성 + .294상표/가격 + 1.137충동구매 + .732개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통계량은 $F(7, 556) = 25.31, P < .001$ 로서 회귀식은 유의하며, 이 회귀식은 모든 변수들이 의복처분 분산의 24.2%를 설명해 주고 있다. 회귀계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보면, 충동구매 요인(Beta=.222)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개성, 의복만족, 실용성 순으로 의복처분 행동을 의미있게 예측하고 있다.

〈표 9〉는 의복처분 하위요인들과 의복구매 기준 및 전반적인 의복만족도의 관계를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부적합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3개의 변수에 의해서 20.4%가 설명되고 있으며, 개성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충동구매, 전반적인 의복만족도의 순으로 통계적인 의미가 있었다. 유행변화 요인에서는 5개의 변인이 종속변인의 분산의 27.1%를 설명하고 있으며, 유행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성, 충동구매, 의복만족도, 상표/가격순으로 중요성이 평가되었다. 3번째 회귀식은 3개의 변인이 품질뿐만 처분요인의 분산을 10% 설명하고 있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는 충동구매, 품질, 개성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효용감소 요인에서는 충동구매와 실용성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산의 3.5%를 설명하였다. 관리/불편 요인에서는 실용성, 충동구매, 상표/가격 기준들이 이 요인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체 분산의 9.6%를 설명하고 있다.

IV. 논의 및 결론

구매 후 소비에 따르는 제품 수명의 마지막 단계는 소비자가 제품을 처분해 버릴 때 발생하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어떤 제품들은 소비하는 과정에서 처분되어 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처분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사용이 중지되는 내구적인 제품도 있다. 그러나 제품의 독특한 특성과 각 제품이 구입, 활용 및 폐기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특정항 것이어야 한다. 특히 의복은 단순히 패션이 변했거나, 권태롭다든지 자신의 외모의 변화 때문에 처분되는 수가 많다.

본 연구는 의류 소비자들이 어떠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의복 처분을 결정하며, 평가 대상이 되는 주요 속성의 중요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품 구입시의 구매 결정요인들과 사용할 때 만족도가 의복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의복을 처분하는 원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체형 변화로 옷이 잘 맞지 않는다”는 항목이 의복을 폐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작용하지 않은 의복실태를 분석한 김병미·이재명(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색이 바래고 보풀이 생겼다”, “오래 입어서 옷의 낡아졌다”, “새로 구입한 옷이 있어서 안 입게 된다”, “입었을 때 편하지 않다”는 순으로 그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20대 초반의 성장기에 있는 대학생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체형 변화로 인하여 옷을 폐기하는 원인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은 이 집단들의 주요 특성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색이 바래거나 오래 입어서 제품의 효용가치가 떨어졌을 때 의복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옷의 구입에 따른 기존 의복의 사장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서도 의복의 폐기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의복의 실용적인 면과 물리적 원인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소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요도가 낮은 순으로 살펴보면, “옷감의 유행이 지났다”는 원인이 의복폐기를 결정할 때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재단과 봉제가 마음에 들지 않다”, “단추나 지퍼 등 부속품이 고장났다”, “이 옷을 많이 입었더니 싫증이 났다”, “옷이 두껍고 무겁다”는 순으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의복의 사장 이유로 성인들은 “유행이 뒤떨어져서”라는 원인이 중요하고, 자녀들은 주로 “치수가 맞지 않아서”라는 원인이 많다고 한 신은주(1989)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류제품의 품질 하자의 문제들은 중요한 의복처분 원인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9개의 의복처분 원인들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유연실(1996)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얻어냈으며, 5가지 요인들은 부적합성(적합성에 대한 불만), 유행변화(유행변화), 품질불만(품질불만), 제품 효용 감소(물리적 효용 감소), 관리/불편(불편)으로 나타났다(괄호안은 유연실의 요인). 거의 유사한 항목을 가지고 실시된 유연실의 연구와 다른 점은 싫증 및 취향 변화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피험자인 재주도의 대학생들은 이러한 항목들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는 데서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표집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부분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5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9.2%를 설명해 주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도 유연실(1996)의 원 질문지 보다 높은 .90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수정된 의복처분 척도는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의복 만족도 및 가계소득 등의 배경변인들에 따른 의복처분 결정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에 따라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의복처분시 유행 변화와 부적합성 요인을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의복이 심미적인 측면과 표현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꺼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려는 여성들에게는 유행은 아주 매력적이고 중요한 관

심사가 된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자인이나 패션의 미에 대해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여성들은 남성보다는 의복구매시와 마찬가지로 의복을 처분할 때도 이러한 요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복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따른 의복처분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적합성 요인이 의복을 사용할 때 만족도를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불만족 집단이 만족한 집단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즉, 의복이 자신 및 상황과의 조화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은 의복에 대한 폐기 수준도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만족한 집단일수록 의복을 처분할 때 제품 효용 감소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의복 사용중에 만족한 사람들은 물리적 효용 감소가 발생할 때 의복을 처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의복처분 결정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적합성 때문에 의복을 처분하는 경향이 높고, 가장의 월 수입이 160만원 이상의 집단들이 그 미만의 사람들보다 유행 변화를 의복처분의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단들이 부적합성이나 유행 요인들을 중요한 의복폐기의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과시적 의복소비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효용과 관계되는 평가 기준들이 이러한 요인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락되는 사회적 효용의 상실요인중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한 유연실(1996)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의복구매시의 구매기준과 사용할 때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각 의복처분 요인들을 의미있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석한 결과, 의복만족도를 의미있게 예언하는 구매 결정 변인은 실용성($Beta=.13$)이었으며 [$F(7, 566)=25.31, p<.001$], 전체적으로 의복처분 행동을 예측하는 상대적 기여도는 충동구매 요인이었고, 그 다음 개성, 의복만족도, 실용성, 및 상표/가격 요인 순으로 의복처분 행동을 의미있게 예측하였다. 의복처분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부적합성 요인에서는 개성 구매 결정 변인이 가장 중

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유행변화 요인에서는 역시 유행 구매 변인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그리고 품질 불만과 제품 효용 감소 요인에서는 충동구매 변인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관리/불편 요인에서는 실용성 구매 기준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충동구매, 개성, 상표/가격의 요인들을 구매 판단 기준으로 이용하여 의복을 구입한 학생들은 동일한 요인으로 인하여 의복을 처분하거나 사장시키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판매중인 물건을 보고 충동구매를 하였을 때 품질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며, 충동구매 자체가 의복들간의 조화를 불완전하게 함으로써 의복의 적합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현명한 구매를 하지 못한다면 소비자 측면이나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복을 폐기 처분하게 됨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류 소비자들은 의복구매시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함으로써 보다 현명한 소비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앞으로 의복처분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속성, 상황적 특성, 및 제품의 고유의 특성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의복처분 결정 요인뿐만 아니라 처분 방식 및 이에 관련된 변인들의 구조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첫째, 의복처분 원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체형변화로 옷이 잘 맞지 않는다”는 항목이 의복을 폐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색이 바래고 보풀이 생겼다”, “오래 입어서 옷의 낡아졌다”, “새로 구입한 옷이 있어서 안 입게 된다”, “입었을 때 편하지 않다”는 순으로 그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둘째, 의복처분 원인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부적합성, 유행 변화, 품질 불만, 제품 효용 감소, 관리/불편의 5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유행 변화와 부

적합성에 따라서 의복을 폐기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부적합성 요인과 제품 효용 감소 요인이 전체 의복만족도를 유의하게 판별하였고, 부적합성과 유행변화 요인은 가계수입 정도를 유의하게 판별하였다.

다섯째, 의복구매 기준과 전체 의복만족도가 전체 의복처분 행동을 예측하는 상대적 기여도는 충동구매, 개성, 의복만족, 실용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성 요인에서는 개성, 유행변화 요인에서는 유행, 품질 불만과 제품 효용 감소 요인에서는 충동구매, 관리/불편요인에서는 실용성 구매 기준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충동구매 요인이 의복처분 요인들을 가장 잘 예측하여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김병미, 이재명, 착용하지 않은 의복의 처리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19-32, 1997.
- 김성연, 이순원, 피복관리학, 교문사, 1984.
- 박성미,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발행, 1997.
- 박운아, 기존 여성의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발행, 1997.
- 신은주, 도시가정의 의복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발행, 1989.
- 유연실, 성인여성의 의복폐기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20(1), 142-156, 1996.
- 윤정혜, 가정 의류의 불용 재고에 관한 연구, 동래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4집, 253-256, 1985.
- 장경혜, 사회책임적 의류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발행, 1996.
- 홍연숙, 의복구매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라전문대학 논문집, 제 16호, 1992.
- Buller, B. M., *Two techniques for studying acqui-*

- sition and disposal of clothing of adolescent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1966.
- Burke, M., Conn, W. D., & Lutz, R. L., Using Psychographic variables to investigate product disposition behaviors. *Proceedings of Educators Conferenc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321-326, 1978.
- Debell, M. & Dardis, R., Extending product life: Technology isn't the only issu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6, 381-385, 1979.
- Fratton, D. M. L., *Clothing values as related to clothing inactivity and discard*.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1976.
- Greeley, R., *Household textiles consumption by midwestern urban families: Selected asp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1973.
- Greenwood, P. F., Any colour you like as long as it's green. *Textiles*, 19(2), 51-54, 1990.
- Glenn, M. L. *Factors related to anticipated and actual wardrobe needs of freshman women at Iowa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1964.
- Hanson, J. W., A proposed paradigm for consumer product disposition process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4(1), 49-67, 1980.
- Jacoby, J., Consumer research: Telling it like it i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 1-11, 1976.
- Jacoby, J., Berning, C. K. and Dietvorst, T. F., What about disposition? *Journal of Marketing*, 41(2), 22-28, 1977.
- Kielty, E. M., *Clothing consumption by women in low to moderate income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1970.
- Krusekopf, J. A. H., *Identifying and obtaining information from purchasers of used cloth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1964.
- Kunz, G. I., *Consumption of children's clothing by low to moderate income families in a midwester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1970.
- Martin, M. L., *The sale of used clothing in Ames, Iowa*.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1962.
- Nicosia, F. M. and Mayer, R. N., Toward a sociology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5-75, 1976.
- Shim, S., Environmentalism and consumers' clothing disposal patterns: An exploratory study.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3(1), 38-48, 1995.
- Smith, J. A., *Consumption of household textiles by Twelve Iowa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1971.
- Solomon, M. R., *Consumer behavior*. Boston, MA: Allyn and Bacon, 1992.
- VeVerka, M. J., *Inactive clothing of selected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1974.
- Winakor, G., The process of clothing consump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1 (8), 629-634, 1969.